

# 자영업자 영세성 심화... 1인 소규모창업 늘어

직원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 1년 새 11만명 늘어... 사업 준비 기간 3개월 미만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1년 새 11만명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품 값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정착 준비하는데 쏟는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았고, 초기 사업자본도 5000만원 미만이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0.4%)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자영업 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61.3%인 420만 명이 남성이었다. 나머지 265만 7000명(38.7%)은 여성이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6%, 0.2% 늘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208만 명·30.3%)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201만2000명·29.3%), 40대(169만3000명·24.7%), 30대(85만명·12.4%)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15~29세) 비중은 3.3%(22만 3000명)이 가장 낮았다. 1년 전(3.6%·25만1000명)과 견줘도 2만7000명(-10.9%) 줄었는데,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층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자영업 영세성과 사업성 지표라 할 수 있는 '고용원 유무'를 기준으로 한 자영업 상황은 좋지 않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3만 7000명으로 11만1000명(2.8%) 늘어난 반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55만 9000명으로 3만6000명(-2.3%)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16만명으로 4만 7000명(-3.9%) 감소했다.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71%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사업 시작의 동기가었다. 1년 전보다 21.0% 높아졌다.

그러나 10명중 9명 가량이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1년 미만(88.9%)의 짧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1~3개월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미만과 6개월~1년 미만도 각각 21.7%, 15.2%나 됐다. 1년 이상 준비했다는 자영업자는 고작 11.1%였다.

창업 규모도 '5000만원 미만'(71.4%)의 소자본이 많았다. 이중 '500만원' 미만이 28.3%였고, '500만~2000만원 미만'과 '2000만~5000만원 미만'이 각각 22.0%, 21.1%였다.

'5000만원~1억원 미만'은 16.6%, '1억~3억원 미만'은 10.9%, '3억원 이상'은 1.2%였다. 사업자금 조달방법은 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8.8%)이었다. '은행·보험·상호·금융고등'은 31.5%, '별도 자본 필요 없음'은 18.0%,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은 7.8%로 집계됐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사업정보 경영 노하우 습득이 힘들었거나 판매 선 확보 및 홍보가 어려웠다는 답변은 각각 22.6%, 20.7%를 차지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일자리(사업)를 경험한 경우는 81.0%였다. 경험한 일자리 형태로는 임금근로자가 57.4%, 비임금근로자가 23.6%로 나타났다. /뉴스



## NH농협 진안군지부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

NH농협 진안군지부의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1000만명 서명운동'에 이항로 진안군수가 제1호로 동참했다.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장기요)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확보 및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이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 운동'을 각종 행사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농업은 생명산업인 만큼 그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꼭 반영돼 농업인의 행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진안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오픈

전주 효천지구 내 단지 중 최대규모

대방건설은 오는 9일 전주 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견본 주택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31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인 대방건설은 구리갈매지구 오 피스텔 분양을 시작으로 전주 효천지구, 화성 동탄신도시, 부산 명지지구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면적 84㎡(690세대), 107㎡(390세대), 117㎡(290세대) 등 총 137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는 효천지구에 들어설 주택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또 기존 효천지구의 공급은 주로 전용면적 84㎡의 중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용 107㎡, 117㎡ 평형이 포함되면서 다양한 수요층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분양은 효천지구 내 단지 중 최대규모인 동시에 마지막 아파트 공급으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단지가 들어서는 효천지구는 전주 서부신도시, 효자지구와 인접해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는 모악산과 삼천,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부 동 거실에서는 모악산과 삼천 수변공원 모습을 내다볼 수 있어 수요가 더욱 불릴 것으로 보인다.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효천지구 내에서는 최초로 단지 내 수영장과 게스트 하우스를 도입했으며,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등도 갖췄고 있다.

효천지구 인근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6월부터 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효천지구 내 마지막 신규 공급인 만큼 노후 아파트에서 이사하려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

## 중기중앙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무역구제 주변화대회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2017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3회째를 맞은 무역구제 경연대회에는 전국 7개 대학 7개 팀(149명)이 참가했다.

참가학생들은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고 조사부터 관정까지 과정을 시연했다.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가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조사'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경희대학교(중소기업중앙회장상)와 청주대학교(무역협회장상), 우수상(무역위원회위원장상)은 전북대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뉴스

## 아이폰X, 이달 24일 국내 출시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가 이달 24일 국내 출시된다.

8일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4일 아이폰X 출시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스라엘, 알바니아, 캄보디아, 코소보, 태국, 터키 등 14개국에 포함됐다.

국내 기존 아이폰X의 언라폰 가격은 64GB 모델 142만원, 256GB 모델 163만 원이다. 미국에서는 64GB 모델이 999달러(약 112만7000원), 256GB 모델이 1149달러(약 129만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

아이폰X는 지금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고가다. 미국에서는 판매가에 약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17~20만원 가량 더 비싼 셈이다.

다만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출고가는 통상적으로 언라폰 보다 다소 저렴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아이폰X의 출고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얼마전 출시된 아이폰8의 경우 언라폰 가격은 64GB 모델 99만원, 256GB 모델 1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출고가는 아이폰8의 경우 64GB 모델 94만6000원, 256GB 모델 114만2900원으로 언라폰보다 저렴했다. /뉴스

##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 금감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소개

#1. A씨는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 의뢰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2. B씨는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하게 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료지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결국 대출을 받아 수술비 등을 지급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또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알아두면 좋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8일 소개했다.

우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의 사본제출이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인 만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 계약자가 차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도 가능하다. /뉴스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도시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도시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도시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도시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